

언론동향(12. 2.)

《언론보도 목차》

1. (국민일보) [DMZ, 희망의 사람들 ‘활활’ 올해도 다시 돌아온 겨울 잔객 2
2. (중부일보)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행정구역 벗어나 ‘광역연합’ 설치 필요” ... 3
3. (국제뉴스) ‘남한에서 보는 북한’...민주 평통 고양시협의회, DMZ 평화통일기행 ... 4

인상 / 김혜미

[DMZ, 희망의 사람들] (끝) '훨훨' 올해도 다시 돌아온 겨울 진객

12월의 풍경 : 두루미의 낙원 철원·연천 민통선 마을

입력 : 2021-12-02 04:08

좋아요 0개



올해도 어김없이 두루미들이 날아왔다. 지난달 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민통선 마을인 이길리 한탄강변에 두루미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쉬고 있다. 두루미는 사람을 무서워한다. 시베리아 혹한을 피해 10월 말이면 따뜻한 남쪽을 찾아 우리나라로 오는 두루미에게 인간의 접근이 통제된 DMZ와 민통선 마을은 가장 안전한 서식지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마을은 접경지역 가운데서도 두루미가 가장 많은 곳이다. 두 강은 남북 공유 하천이다. 저 강에서 쉬고 있는 두루미들은 남과 북을 오가며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테지.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된 지 오래다. 두루미처럼 사람들도 남북을 오가는 날이 언제 올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사진=조현택 사진작가

백령도=글 손영욱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탈모고민
2주만에

27
8

*로또
고액 연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행정구역 벗어나 ‘광역연합’ 설치 필요”

경기연, 재정·사무처리 등 분담 제안

경기·인천·강원 내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 77.8%에 그치는 등 저발전·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인·경·강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인천·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의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연천군 ▶강원 춘천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총인구가 약 300만 명이지만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 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

침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약 2천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천727만 원의 77.8% 수준이다.

이에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화성과 용인 등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기남부연합’이 광역연합의 대표 사례다.

인·경·강 접경지역이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은 지역 특성상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보호, 접경지역의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이 있다.

연구원은 해당 지역 접경지역 광역연합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5개 시·군의 광역연합 설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의회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구성 시·군의 인구, 사무 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각각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광역연합은 광역 시·도의 사업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남한에서 보는 북한'...민주 평통 고양시협의회, DMZ 평화통일기행

A 허일현 기자 | © 입력 2021.12.01 14:26 | 댓글 0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40여 명 참석



(사진 제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이하 민주 평통)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 DMZ 평화통일기행을 가졌다.

1일 민주 평통 고양시협의회에 따르면 여성분과 주관으로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행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DMZ 평화통일기행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이민자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역사 유적지를 체험하고 분단의 현실,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행은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서북부하나센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시이민자통합센터의 협조로 이뤄졌다.

이에 지난달 17일 1차에는 파주·연천일대 임진각, 민통선, 경순 왕릉, 고랑포역사박물관, 호로 고루성 등을 다녀왔다.

또 지난달 30일 2차에는 강화역사관, 강화평화전망대, 조양방직, 고려궁지 등 강화 일대를 다녀왔다.

하동평 협의회장은 "고양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이 이번 DMZ 기행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통일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뉴스

- **美 백악관, 유대 명절 하누카 맞이 '메노라' 점등**
- **오늘날씨의 키워드 '서울날씨' '눈오나' 체감온도**
- **일본 도치기현 우쓰노미야 남남동쪽 41km 지진**
- **오로라월드컵, 중기사랑나눔재단에 어린이 마**
- **레미콘(연), 중기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5000만**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2022년 공인중개사시험 시험과목과 공부방법 알**
- 2 [단독] LH 브랜드 세종 시 아파트 '안단테' 분양**
- 3 최기자의 토크인사이드: 여야 대선 후보 중**
- 4 이재명, 30대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영입**
- 5 국제 유가, 코로나 변이 우려에 하락-WPI 5.3%**